

지난 역사바탕위에 새 역사를 창조하자.(3)

= 시공은 역사의 무대, 무대의 주역은 인간과 그 무리들 =



寒梅山房主人 白甫
(통일회원)

◆ 역사기록의 목적이 아니고 새역사 출발과 창조에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오는 2013년 10월 10일로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반세기전인 1963년 10월 8·9·10일 3일 동안 중앙중요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월간 「새농사」 편집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가 공동주최로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건국대학교에서 열렸다. 8일은 전국대회행사를, 9일은 시가행진을, 10일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창립총회가 열린 것은 이미 본지 제543호(이하 통권만을 표기함)에 기술한 바 있다.

시간은 반세기전이나 몇천년 전이나 오늘이 지구의 회전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간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였을까?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살피면서 기록하는 목적이 아닌가? 지구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만이 기록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까치와 까마귀는 수 만년을 두고 집을 짓는 기술이 단 한치도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두고 여러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원시사회~농경사회~산업사회를 거쳐서 오늘날을 두고 흔히들 '정보화 사회' 라고 말한다. 지난 반

세기의 역사는 유사 이전과 이후를 통 털어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인류의 미래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가라는 '무리(衆)' 나 기업이나 단체나 모든 무리들은 독립된 개체들이 그물의 '코' 처럼 엉키고 연계되어 있다. [인터넷(internet), 네트워크(network), 네티즌(netizen) 등...]

◆ 정사와 전사를 합하면 우리협회의 출발점 60년!

필자는 본지 제543호나 제545호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털어냈다. 이 단체와 이 운동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 운운하는 것은 '정장섭이라는 운명' 을 털어놓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고백하고자 한다. 위에서 기록한 대로 나는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 생명을 얻어 태어나서 국민학교(오늘의 초등학교) 6년간을 일제식민지교육을 체험하였다. 해방! 38선과 국토분단, 미군정 3년에 대한민국의 건국, 1년 10개월만의 6·25전쟁, 처절한 전쟁 3년만의 휴전인가? 정전인가? 4·19에 5·16 등 역사는 곤두박질을 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 자랑스럽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50주년에 역사를 정사(正史)의 출발점이라면 전사(前史)는 언제인가? 1953년 9월에 6·25전쟁 휴전 직후이었다. 은사이신 김종 선생님이 대구연초시험장의 장장으로 계시던 관사에서 중앙종묘의 박갑수 사장과 하영래 전무님을 처음 만나고 김종 선생의 조수로서 '중앙종묘상보(中央種苗商報)'의 1954년 봄호를 대구에서 발행한 시점이 전사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고 따지자면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정사와 전사를 합하면 60년이 정확한 계산이고 보면 환갑의 나이가 된다.

◆ 싸구려의 내 몸값 돈 안드는 농촌문화 지속가능하게 하고

나는 6·25전쟁에서 부상으로 한눈 한귀를 잃어 버리고 중증의 장애인(1급)이라서 취직할 곳이 없고 갈수도 없었다. 내가 우리협회의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으로 한길을 온 것이 아님을 솔직히 고백한다. 또 한 가지는 김종 선생님의 강력한 권고로 중앙종묘가 우리나라 최초로 육종연구농장의 개설과 전쟁으로 초토가 된 농민과 농업과 농촌에 문화사업으로 돈이 안되는 월간 '새농사'를 창간하고 계속 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 나의 한 사람 몸값이 싸구려여서 인건비의 부담이 없이 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하나뿐인 가족인 누이가 먼저 결혼하고 나는 '혈혈단신'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걸치고 있는 옷 단벌에 하루 세 끼니를 해결하고 아무데서나 자면 그만인 생활이었다. 박갑수 사장과 하숙, 한집에서 따로 자취 등 오랫동안 생활한 이유도 경제가 원인이었다. 요즘에 와서 노처가 나를 두고 '장애를 감추고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욕박지르면 나는 말이 없이 그야말로 소이부담(笑以不答)이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활자의 만남'과 그 신통력과 신비함과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모든 서적 중에서도 '상보(카달로그)'의 편집은

최고수준의 편집자의 솜씨로 친다. 일본의 저명한 세계적인 종묘회사의 상보를 편집참고로 하고 대지에 일본상보의 사진을 오려붙이고 품종명과 짹막한 설명문을 작은, 거의 활자크기로 써넣는 일이 상보의 편집이다. 일본말과 글을 알았고 이런 꼼꼼한 일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았다. 그 보다도 곁에서 지켜보시는 김종 선생님의 칭찬에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활자원고는 문선과 조판을 거쳐 교정을 보고 전사를 떠서 대지에 사진을 중심으로 전사를 오려붙이면 사진제판용 원고가 완성된다. 옵세트 인쇄기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였다. 표지는 따로 다색인쇄하고 본문과 제본소에 넘겨지면 제본소의 기능공들의 재빠른 접지솜씨에 놀라고 표지를 본문과 붙여서 제본이 되면 최종단계인 제단을 하고 제단사가 먼저 한부를 집어서 내게 보라고 출때 그 짜릿한 희열을 60년이 지난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 활자와의 만남과 책이로의 변이에 빠져 편집자의 길로

나는 이 나이에 '편집쟁이'로서 크게 분류하면 신문·잡지와 단행본으로 분류한다. 인쇄방법도 석판, 활판(평판), 옵세트, 운전기 등 '그라비아' 말고는 안해 본 것이 없다. 부산의 작은 인쇄소에서 활자크기(호수)가 너무 다양해서 일본에 가는 선원들을 통해서 활자를 사오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인쇄문화가 컴퓨터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지개벽'을 하였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결론으로 옮겨갈 참이다. 1964년에 아내가 활명수장사를 개업할 때 공중전화와 담배점포는 약국의 필수사업(?)이고 주위의 고마운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다. 가정용 일반 전화는 그 당시의 속어로 뺨이 없으면 들여놓을 수 없는 '귀물'이었다. 무허가 약국건물과 맞먹는 돈을 주고 모셔왔다. 이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허풍친

다'고 하겠지만? 오늘의 전화기의 다양한 기능은 스스로 '컴퓨터 도사'인 나도 잘 모른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녹음기, 라디오, 문자도 음성도 그리고 그림과 사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전송을 하고 인터넷으로 전세계 구석구석에 실시간으로 직접 교신을 하는 등등이다.

본지 '농업기술회보'가 1964년 7월 20일에 창간되고 월간의 '타블로이드판'의 신문이었고, 2001년에 와서 강춘성 회장 임기 때 발간한 '4×6배판의 잡지형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간으로 지령이 546호이니 나이와 역사를 알만한 것이 아닌가. 창간호를 내가 편집을 했으니 '감개무량'하다.

모든 책은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기호(글자)를 모아놓는 것'이다. 이 책을 우리 동양인이 지구상에서 맨 먼저 만들고 금속활자도 먼저 만들었다. 그런데 서구인은 컴퓨터를 먼저 만들었다. 활자크기의 단위를 동서양과 비교하면 사고(思考)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언부언한다. 동양의 활자는 호수로 특호, 초호, 1호로 내려가고 서양 활자는 거꾸로 '포인트(point)'라고 해서 무한대로 키울 수 있다. 종이의 치수도 동양식과 서양식이 다르다(팔호안 서양식). 국판('A판')과 4×6판('B판')으로 구분된다. 국판 책을 4×6판으로, 4×6판 책을 국판으로 인쇄하면 '종이 결'이 안맞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4×6판은 가로 4촌(12cm)에 세로 6촌(18cm)의 책 크기를 말한다. 종이의 '결'은 편집의 기본지식이고 대단히 중요하다. 목수가 나무의 결을 모르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모든 물질, 종이, 섬유, 유리, 피혁, 심지어는 철강, 플라스틱까지도 결이 있다. 나는 사람도 심성에 결이 있다고 믿는다.

◆ 무리의 도덕성이 역사를 당당하게 빛내고 새 역사를 창조

본지 543호와 545호가 배포된 자 나는 전화격려

에 신바람이 났다. 지난 4월 8일(월) 이른 아침 07:00시에 '우리협회 50년사를 잘 만들어서 모든 회원들에 배부하여 읽게 하자'고 당부하고 익명을 전제로 도우겠다고 내게 전화를 주신 '통일회원'이 있었다. 그 나흘 후인 4월 12일(금)에 건대축대의 7기생으로 파일연수생출신 정흥기 회우의 부부가 내 글을 읽고 찾아와서 우리협회 50년사의 출판비에 100만원의 큰 성금을 기탁하였다. 이날 정흥기 회우 부부를 윤천영 회장과 함께 맞이하여 상허 유석창 박사께서 건국대학교 안에 당대의 저명한 석학이신 김범부 선생님(저명한 작가인 김동리 선생의 형님)을 초빙하여 '동방사상연구소'를 개설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우리협회의 1965년에 부설 농업기술연수원 개원을 하고 상허 유석창 원장이 첫 강의를 하시는 모습에서 후반에 쓰신 '頓悟'와 '漸修'가 동방사상연구소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는 이날 깨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몇 칠 후 윤천영 회장은 나에게 '오류 애육원'의 삼농 송석도 선생의 유족들이 50년사의 출판경비에 또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을 약속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윤천영 회장과 내가 50년 전의 우리협회 창립발기인 50인중 생존인사를 확인해보니 6명인데 놀랐다. 50년 세월이 이렇게도 무상한가. 이 글의 말미에 '윤천영 회장에게 간추린 몇 가지 건의서'를 첨부하기로 한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이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주체이니 앞으로 역사창조의 일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자화자찬(自畫自讚)'이 아니다. 우리 무리들은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朝聞道(조문도)면 夕死可(석사가)라 하였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1969년 '상허농촌복지재단의 발기인'들과 1974년의 통일회원제도에 의한 '농업기술진흥관 건립운동', 1999년의 '농업기술진흥관 수호성금모금'에 동참한 동지들의 명판이 농업기술진흥관 현관에 모셔져 있다. 2005년에는 고 상허 유석창 박사와 고 성천 류달영 박사의 흉상을 건립하였고, 나는 농진관에 조석으로 드나들 때마다

마당의 성천 류달영 박사님의 흉상(胸像)과 현관 안에 상허 유석창 박사의 흉상과 17,000명(?)명판에 합장하고 예를 올린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농심의 동지들이 죽어서도 한 뜻, 한 무리로서 살아있는 자의 수호신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정사와 전사(前史)를 통해서 우리는 60년의 발자취를 남겼다. 우리들을 이어서 새 역사창조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없다.

◆ 강령을 외치고 회가를 합창하면 회기를 앞세우고 새출발

상허 유석창 총재가 세운 선도농가들의 강령의 깃발을 앞세우고 새 역사의 창조에 힘차게 출발하자.

이 글을 마감할 하면서 회고하건대 ‘새농사 창간사’,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취지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창립취지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기 도안’, ‘선도농가의 강령 초안’, ‘선도농가의 노래 = 전국농업기술협회 회가 = 작사’ 등, 선도농가의 강령은 상허 유석창 박사의 필생의 역작이고 우리협회의 이념이고 바이블인 ‘한국농업의 미래상 =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와 이 책의 부록인 ‘조용한 혁명 = 선도농가를 위하여 =’ 이다. 내가 부록인 책을 나오자 읽고 목차에서 금방 만들어냈다. 회가는 몇 달을 두고 작사한 것을 들고 건대 낙원동 2층 재단이사장에 예방하였더니 상허 유석창 박사님은 ‘정 전무가 시인인줄 몰랐어!’ 하시면서 극찬을 하여주셨다. 우리협회의 공식기구인 운영위나 이사회를 거치 않고 나도 모르게 즉시 당시 서울대 음대의 김성태 학장에게 작곡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 회가에는 곡이 또 하나가 있다. 찾으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농림부의 주성규 차관과 인척(?)이고 현재 미국에 이민 간 황재길 씨가 주성규 차관과 협회를 좋게 도와준 분이 다. 이 황재길 씨가 친구 중에 육군군악대의 대장에

게 이 작사를 넘겨서 또 하나의 작곡을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회기의 도안은 우리협회의 ‘요람’에 실린 것을 옮기면서 이 글을 끝낸다. 게재의 지면을 허락한 윤천영 회장과 읽어주신 회우들에게 감사한다.

▶ 선도농가의 강령(3대 혁명)

하나.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인 협동화를 이룩하자.

하나.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인 전문화를 이룩하자.

하나.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인 복지화를 이룩하자.

▶ 선도농가의 노래(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가)

(작사 : 정장섭, 작곡 : 김성태)

농민의 정신혁명 절

오랜 역사 금수강산 농업의 나라
찬란한 새 시대 자랑스런 주인들아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협동 이룩하세
우리는 사명 큰 선가농가다.
정신혁명 푸른 깃발 높이 들고서
일어서라 뭉쳐라 앞서 나가자.

농업의 기술혁명 절

물려받은 낡은 농구 메마른 농토
지혜와 기계로 길을 열고 물을 잡아
비바람 근심 없는 과학농사 지어보세
우리는 사명 큰 선가농가다.

기술혁명 푸른 깃발 높이 들고서
일어서라 뭉쳐라 앞서 나가자.

농촌의 생활혁명 절

초가지붕 우리살림 가난한 마을
땀방울 쏟아서 합리적인 새 설계로
행복의 꽃이 피는 복지농촌 건설하세
우리는 사명 큰 선가농가다.
생활혁명 푸른 깃발 높이 들고서
일어서라 뭉쳐라 앞서 나가자.

외치자! 선도농가의 강령!
부르자 선도농가의 노래를!

▶ 회기 및 휘장 해설

1. 깃발의 바탕은 겨레를 뜻하여 백색이며, 아래 위로 녹색 띠를 두르니 위쪽의 녹색 띠는 이념과 과업을 상징하고 3대혁명이 백색문자로 표시되며, 아래쪽의 녹색 띠는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상징하여 협회명이 백색문자로 표시된다.
2. 흰색바탕위의 휘장은 삼위일체적 개발 5단계론과 3대혁명 및 선도농가와 협동단결이 집약되어 있다.
3. 3개의 녹색원이 얹혀져 있음은 삼위일체와 협동을 뜻함이며 원이 얹혀 이루어진 가운데에 5자 둘이 맞붙어 삽(쟁기)을 이루니 이는 농의 상징이며 개발을 뜻한다.
4. 한쪽 5자는 5단계론의 5를 뜻하고 또 한쪽 5자는 5만 자연부락을 뜻함이고 녹색이다.

5. 5자들이 맞붙은 중심에 녹색정원은 선도농가와 단결을 뜻한다.

6. 3원이 얹히어 이루어지는 여백에 적·청·황으로 색칠이 되니 적색은 정신혁명, 청색은 기술혁명, 황색은 생활혁명을 뜻함이다.

나는 4년 전인 2009년 제50회 전국대회 그날저녁 때 희귀한 병에 걸려서 2개월여의 병원신세를 지고 다시 살아났다. 2001년 1월 15일에 제41회 전국대회를 마지막으로 강춘성 회장과 이·취임식을 하고 그해가 1951년 3월에 부상한지 50주년이었고, 그날부터 하루가 달리 시력이 악화되어 갔다. 만일에 이 모진 시력이 1년 전이나 3년 또는 5년 전에 닳았다면 협회 일 업무이전에 우리집안이 거덜이 났을 것이라 상상하면 너무나 행복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남아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창립50주년을 제5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여 영원하라! 농심의 동지들이여 영원하라! 먼저 가신 농심의 선배들의 명복을 삼가 비나이다. ☺

